

대구 주보

연중 제32주일 2017. 11. 12.(가해) 제2078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처녀들이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기름이 떨어진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 25,1-13 참조) 그 날을 위해 우리들은 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_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제1독서 지혜 6,12-16

제2독서 1테살 4,13-18

복음 마태 25,1-13.

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깨어있어라!



최동석 안드레아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예수님 시대의 결혼풍습에 따르면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한 후, 신랑 될 사람은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이 기간은 대략 1~2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혼은 미완성된 결혼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이전까지는 만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며 결혼식이 끝나야 함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가는 날짜는 신랑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었으며 아버지는 모든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하면 아들을 신부에게 보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신랑도, 신부도 모릅니다. 신부가 아는 것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신랑이 혼인 잔치를 위해 데리러 올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부의 처녀(들리리)들이 빨나팔을 불어대며 신랑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큰소리로 외칩니다. 혼인식은 신랑의 집에서 저녁에 치러지는데, 이때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행렬을 이루어 결혼식장으로 갑니다. 그 후 결혼예식이 절차에 의해 거행되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의식을 치른 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의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 그제야 잔치가 시작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를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마중나간 열 처녀에 비유하였습니다. “신랑”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뜻하고, “열 처녀”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

고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어리석은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랑은 “한밤중에” 즉, 뜻밖의 시간에 온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던 처녀들은 뒤늦게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충실히 듣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한편, “깨어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어 의식해야 합니다. 세속의 생각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체”로 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인 신자의 의무로만 미사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

자연과 더불어 한해를 마무리하며

이영동 치릴로 신부 | 산자연중학교 교장

한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산자연중학교도 자연에 발맞추어 살고 있습니다. 늦가을에 나오는 누른 호박, 팔, 콩, 사과 등을 수확하느라 분주하지만 기분 좋게 보내고 있습니다. 수확한 농산물로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팔을 넣은 시루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평소에 잘 안 먹던 아이들도 너무 맛있어 합니다. 호박전과 호박죽도 맛있습니다. 작년에는 학부모임을 모시고 우리가 직접 심고 가꾼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올해도 막대기 하나씩 들고 열심히 콩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과 따기 체험은 올해도 여전히 기대됩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들까지 참여한 사과 따기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빨강게 익은 사과나무 앞에서 체면도 잊어버리고 너무 열심히 따는 바람에 모두들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은행나무는 진한 향기를 뿌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기약하며 밭에 밀을 뿌리고 마늘도 심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은 많은 희망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우리학교의 자랑인 ‘마을 어르신과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에 앞서 1년간 마을 어르신 여섯 분이 열심히 배운 색소폰을 연주했는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처음 어르신 연주팀이 만들어질 때 과연 잘될까 반신반의했었는데 모두들 놀랐습니다. 내년에는 2기 연주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학생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마을 오케스트라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짝을 지어 걸으며 시작된 산행은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주변의 단풍들도 물들기 시작했고 많은 대화가 오갔으며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모두가 밝았습니다. 이러한 여행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매할배와 손자손녀들이 산행하는 것을 보고 산행하러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학교수업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놀랍다. 그리고 오산리 마을 어르신들이 너무 부럽고, 학생들도 너무 이쁘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은 행복합니다.

일반학교와는 조금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학생, 교사, 마을 어르신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웁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처지에 맞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보통의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는 학생들과 콩을 수확해서 막대기 하나씩 들고 두들겼습니다. 어떤 것들은 바닥에 놓기만 해도 콩이 빠지고, 어떤 것들은 조금만 두들겨도 되고, 어떤 것들은 많이 두들겨야 콩이 빠지고, 어떤 것들은 아무리 두들겨도 빠지지 않아서 손으로 까야 했습니다. 콩을 두드리던 한 학생이 ‘이 놈은 아무리 두들려도 안 빠집니다. 꼭 나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두들겨도 잘 안 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사랑으로 풀어가야 할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김민**

나를 개우치게 한 탄자니아 니앙가오에서, 4년의 삶을 회상하며...



그곳 역시 지구 온난화로 내가 떠나오기 전 해인 2015년, 함께 사는 탄자니아 수녀조차도 joto(덥다)라는 스와힐리어를 자주 쓰는 해였다. 2016년 12월,

내가 떠날 때 짐을 싸는 동안 거의 10분마다 “아 정말 덥다!”라고 외치면서 시간을 정리하였다. 옷이 계속 젖어들어감에... ‘아! 정말 더운 이곳에서 더위를 많이 타는 내가 잘도 견뎌내며 지내고 가는구나.’ 하며 스스로를 대견해 하였다.

첫 6개월의 시간은 내게 어두운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다. 너무나 다른 언어, 음식, 그리고 모르는 것 투성이... 365일 니앙가오 분원은 스와힐리어로 기도를 한다. 그 독특한 격음이 많은 단어들. 그리고 밥에 소금과 기름을 넣어야 밥이 완성된다는 그들의 식성. 야채는 반드시 아주 아주 얇게 썰어서 기름에 볶고 토마토와 소금을 꼭 넣어야 완성되는 그들의 일품 요리, 모든 요리는 튀김으로 마무리해야 축제의 음식이 마련되는 이들의 음식 문화에 지내는 4년간은 여전히 낯설고 다양한 산해진미, 독창적인 맛을 내는 한국음식이 그리운 시간들이었다. 탄자니아인들이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하는 옥수수로 된죽을 만드는 우갈리는 여전히 쉽게 손이 가지 않은 음식이었다. 그럼에도 음식에 대한 향구한 그리움이

김선미 골룸바 수녀 | 대구포교베네딕도회

지속되지 않음도 또한 은혜로 생각이 되었다.

선교사의 도전인 기후, 음식, 언어, 그리고 그들의 문화 이해는 늘 장벽을 느끼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는 숙제가 된다. 그곳의 시간들은 느릿하게 존재하는듯 싶으면서도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은 꽤나 역동적이었다. 그리고 순간의 숙제가 늘 도전이 되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한 나의 최선의 대답, 최선의 노력을 늘 풀어가야 했다.

학생이 학교에 합격했지만 학비가 없어서 또는 부족해서 오는 경우, 집이 없어서 집을 지어야 하는 경우 또는 집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족한 경우, 배고파서 식량을 요구하는 경우 등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에 응답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그리고 짧은 언어로 이들의 말을 어떻게 잘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는가? 매 순간의 도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히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순간에도 느꼈지만 선으로 인도 됨을, 결국 끝에는 모든 것이 잘 마쳐진다는 믿음을 철저히 배우는 시간들이었다. 이번은 어떻게 해결이 되지? 하고 고민과 동시에 이면의 나의 생각에는 하느님이 또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호기심이 동시에 들었으니... 그리 어려운 일도 비록 어려워서 마음이 소진이 되더라도 그 선하심을 인도하는 항해잡이이신 주님의 배를 타야 함을 또다시 배우는 연속이었다. **필로**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누룩 없는 빵의 축제 <영> Feast of Unleavened Bread

“무교절”(無酵節)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의 축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해마다 지내는 누룩 없는 빵의 축제, 곧 무교절은 본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지냈던 농경 축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신명 16,9 참조) 누룩, 곧 지난해에 추수한 것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넣지 않고, 순수한 햇곡식으로만 만든 빵을 먹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이스라엘은 이 농경 축제를 받아들이면서, 이 축제에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여행 양식을 장만하지 못하고 급히 떠나왔음을 상기시킵니다. 탈출기 12장 1~20절에서는 파스카와 무교절을 병합시키지만, 더 오래된 전례력에는(탈출 23,15) 이러한 연결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식재 斷食齋 <라> ieiumium <영> fasting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참회를 표현하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하여 절약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교회법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자들이 단식재를 지키도록 규정합니다.

달마티카 <라> dalmatica <영> dalmatic

미사나 행렬 등 장엄한 예식 때에 주로 부제가 입는 옷으로, 소매 폭이 넓고 띠를 매지 않는 헐거운 옷입니다.

대리구 代理區 <라> vicariatus <영> vicariate

“대리구”는 하나의 교구 안에서 지역적으로 세분된 구역들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들은 몇 개의 본당들을 묶어서 이루어지며, 보통 대리구장의 사목적 지휘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대리구”는 “감독 대리구”, “지구” 등의 명칭으로도 부르며, “대리구장”은 “감독 대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분된 대리구들은 더 상위 그룹으로 묶이거나, 더 하위 구역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법 제554~555조는 “대리구장”을 “감독 대리”라는 명칭 아래 규정하고 있는데, 감독 대리는 개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부여된 특별 권한 외에도 대리구 내의 공동 사목활동을 증진하고, 담당 구역 성직자들의 합당한 생활과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보살피며, 종교 의식, 성찬 거행, 본당 사목구 대장과 재산 등이 주의 깊게 관리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구 내 사제들에게 신학적 영적 지원이 지속되도록 보살피고, 사제들이 아플 때 돌보며, 사망 시에 교회의 대장들, 문서들, 거룩한 기물 등이 잘 보존되도록 염려해야 합니다. **참고**

(발췌_『천주교 용어집』(2017))



- 11. 5(일) _ 고산성당 30주년 감사미사 및
견진성사
- 11. 7(화) _ 교구 사제 총회
- 11. 8(수) _ 주교 현장 체험(안성 하나원)
- 11. 9(목) _ 제21회 한국가톨릭학술상 시상식



- 11. 5(일) _ 봉곡성당 견진성사
- 11. 7(화) _ 교구 사제 총회
- 11. 8(수) _ 전례꽃꽂이 전시회 개막식
- 11. 10(금) _ 성모자애수녀회 총회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매년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이날을 맞아 특별히 11월 18일(토)에 교황 대사 대리 마르코 스프리치 몬시뇰과 함께 '제1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미사를 봉헌합니다.

일시: 2017.11.18(토) 16:00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

집전: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특별 강론: 교황대사 대리 마르코 스프리치 몬시뇰

주교좌 범어대성당

파이프 오르간 축복식 및 준공 연주회

일시: 2017.11.17(금) 19:3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집전: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연주: 올리비에 라트리(파리 노트르담대성당 수석 오르가니스트)



답: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깨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 번이라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천국행(?) 수능문제

박성규 엘리지오

- ※ 살아 생전 당신이 행했으면 O, 행하지 않았으면 X로 답하십시오.
- 1) 당신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
 - 2) 당신은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
 - 3) 당신은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 하였습니까? ()
 - 4) 당신은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었습니까? ()
 - 5) 당신은 병든 자를 돌보아 주었습니까? ()
 - 6) 당신은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까? ()



미사 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3일(월) 10:30 범어성당	수능기원미사	11월 14일(화) 11:00 성모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13일(월) 11:00 황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14일(화) 11:30 계산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3일(월) 11:00 신평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18일(토) 10:00 월성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3일(월) 11:00 계산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1월 18일(토) 11:00 성모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3일(월) 11:30 월성성당	-	-

성소 | 피정

개인 피정(선착순 10명)

산내 피정: 11.21(화)~22(수)

시니어 피정: 11.28(화)~29(수)

장소: 효령하늘집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마리아 여성 피정(성체현시·미사·안수)

일시: 11.15(수) 13:00~16:30

12.20(수)13:00~16:30

장소: 삼덕성당

지도: 강요셉 신부 / 문의: 422-6691

고3 피정

기간: 11.25(토)~26(일) 18:00

장소: 텃밭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상: 고3 여학생(선착순)

문의: (010)9347-3431

젊은이 2박 3일 피정

기간: 11.24(금) 19:00~26(일) 13:00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 본원

주제: 내삶을 변화시키는 치유(학교시기)

피정비: 5만원

문의: (010)4270-3103

교육 | 모집 | 기타

2018년 24차 해외선교사 교육

기간: 1.15(월)~2.10(토)

대상: 해외선교 준비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양성담당자

문의: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02)953-0613

성심유치원 입학설명회

일시: 11.18(토) 10:00, 성심유치원

원서교부: 11.22(수)~27(월) 9:00~18:00

대상: 만 3~4세 / 문의: 553-1090

마리아유치원 입학설명회

일시: 11.21(화) 10:30(5분전 입실)

장소: 범어대성당 마리아유치원 강당

(어린이 입장 불가)

문의: 745-2091

가톨릭신문사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11.23(목)~12.8(금) 15박 16일

장소: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경비: 내측 558만원, 발코니 588만원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제51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2018.1.6~2.11(3, 5주 선택)

대·일반: 2018.1.2~2.11(6주, 장기 선택)

아일랜드·세계 학생들과 함께 수업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제주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호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중독문제의 이해’ 지역주민 특강

일시: 11.15(수) 11:00~12:00

장소: 대구서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용: 중독과 가족병, 치료와 회복 등

강사: 구자섭 정신과의원 원장

문의: 638-3778 / 638-8778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대구가르멜수녀원, (010)3375-4408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Neome Skin Clinic 네오미피부과

원장/피부과 전문의 이준호 시메온

소아, 난치 피부질환 클리닉
명품레이저 보유

월성CGV 건너편 **T.053)656-0075**

NAVER 네오미피부과 검색

SINCE 1985 안지랑 국민은행 3층

성가정결혼

권종문(파비올라)

053)474-0025
010-3818-0818

결혼명가 노블코리아

중신 잘하는 집!

미팅횟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옥순(요안나) 영주(젬마)
동대구역 신세계 부띠끄시터!! 드라마동 10층 14호

척추 관절 중점 병원 척척병원

척추·관절 전문 병원

정형외과전문의 **곽은석(디모테오)**
신경외과전문의 **신철식(요한)**

T. 053)718-7700 www.wisemanhospital.com
대구 북구 읍내동 1208-2 (칠곡시장 맞은편)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이제는 안전하게 파쇄!

시니어문서파쇄사업

시니어문서파쇄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대구서구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사업입니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구서구시니어클럽

문의 ☎ 053)563-1025 노현영 사회복지사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한투어

일반 여행 및 성지순례 전문
(이스라엘, 성모발현지, 터키, 그리스 등)

☎ 053-427-7090
안요한, 김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행사 | 모임

11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1.19(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제9회 교구 성경암송 발표대회

일시: 11.25(토) 14:00~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루가관 7층 대강당

자격: 대리구 대회 부문별 입상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성골롬반회 창설 100주년 기념 개막미사

일시: 12.2(토) 14:00

장소: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성당

주례: 김희중(히지노) 대주교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26-1217

1회 피규린 비블리크(성경인물) 전시회

기간: 11.25(토)~12.4(월)

장소: 바틀로교육센터(파동로32길 124)

주제: 루카가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

(성경의 사건과 인물을 피규린으로 꾸밈)

문의: 783-9817 / (010)3484-3342

교육 | 모집

11월 가나 강좌

일시: 11.19(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사목담당, 250-3114

제3기 해외봉사단 모집

기간: 2018.1.3(수)~13(토)

장소: 필리핀(사랑의 선교회)

회비: 90만원(선착순 25명)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http://dcy.co.kr>

11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11.18(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죽음에서 생명을

강사: 배은주(이사악) 수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황창연 베네딕도 신부님 초청 특강

일시: 11.12(일) 13:00

장소: 대안성당 1층 성전

주제: 삶, 깨닫기

문의: 252-6249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기 뿌에리 칸포레스 합창단원 모집

대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2018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13(월)~2018.2.9(금)

과목: 성경, 교의, 전례 등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주은(가밀라), 김영만(바오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2018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8년 대구주보 광고접수에는 기존 1,2차 순번추첨과 위임신청제를 없애고
광고접수시간 예고제를 시행합니다.

· 주보 광고접수일: 11.23(목), 대건관 2층 가정사목담당 회의실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순번추첨일부터 익일까지)

광고접수시간 예고제란? 광고접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상 접수시간을 계산하여 문화홍보실에서 사전에 진행한 순번추첨결과와 예상접수시간을 광고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8~9

우리아이 아플때!!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 99병상 입원실 운영 * 성장클리닉 운영
* 평일 외래진료: 오전 9시 ~ 밤 11시까지
* 토·일·공휴일: 오전 9시 ~ 밤 9시까지
대표전화 053)260-7777
서부정류장 원문시장 옆 (구.달성군청자리)

신랑각시 결혼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1년 경력
053)476-1400 | 010-8216-3322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다비드 제통외과
비수술적 척추, 관절, 신경, 인대 치료 전문
물리치료에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통증 전문
원장 권영득 (다윗)
Tel : 053)351-1704
칠곡 동아백화점 사거리
지하철 3호선 칠곡운입역에서 도보 10분

SM 수맥홍침대
창업 26주년 세일 행사!
공장직판, 거실소파
☎1588-5335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일월, 한솔, 한일매트
게르마늄 온수매트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대구 북구 유동단지 45 전자관 1층 239호

김&송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